

2019

온갖문제
요구

분노 팀
분흥과 노랑의 질주

‘페미시국광장’의
프레이밍을 통해 본
**페미니즘 운동의
미시동원맥락
네트워크 분석**

2019
시민참여연구
공감연구

어머나!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바뀌었다!

〈2019 온갓문제연구 - 공금한 길에 연구〉는 공금중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시민연구자에게 연구비 지원(최대 250만원)을, 연구가 낳은 시민에게는 열린 워크숍 '온갓연구실현실'을 통해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나누는 자리를 열고 있습니다.

〈2019 온갓문제연구 - 공금한 길에 연구〉를 진행하며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한 시민 연구자는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비빌 언덕이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또 다른 분은 “연구란 나와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상관있을 줄 몰랐어요”라는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비용과 과정이란 장벽은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작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자와 함께 작게 시도하며 연구의 의미를 '제도권 안의 학습'에서 '자유로운 학습'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과정에 소외와 배제를 제거하여 연구가 대담하기보다 즐거운 여정이 되는 필요한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건 바로 시민연구자 분들입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되는 세상〉을 위해 지금처럼 멀리 혹은 가까이서 응원을 더해주시길 기대하며, 그날까지 희망제작소는 〈온갓문제연구〉 프로젝트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머나!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바뀌었다!

3

분노 팀

분홍과 노랑의 질주

시민연구자

박재승
장소정

재승, 소정 씨는

인터뷰 내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깊게 고민하고, 단어 하나 하나를

소중히 골랐습니다. '페미시국' 광장에

우리는 언제 모이고, 흩어지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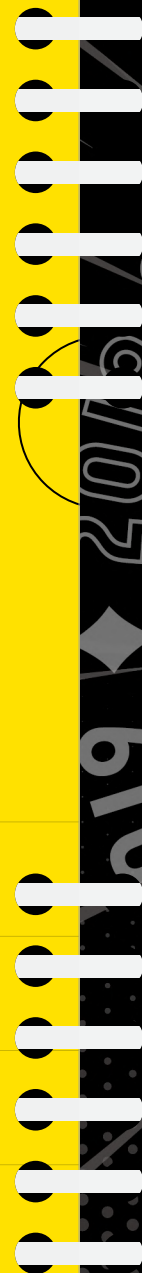
2019 온갖문제연구
공금한 김에 연구

장소정

박재승

『'페미시국광장'의 프레임링을 통해
본 페미니즘 운동의 미사동원맥락
네트워크 분석』 연구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 지원사업인 〈2019
온갖문제연구-공금한 김에 연구〉에
선정된 위 연구진이 수행했습니다.

2019 온갖문제연구





목차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인 정지강
기획 기은환, 손혜진
편집 방연주
디자인 조현상

0397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성산동 114-14)

T. 02-3210-0909
F. 02-3210-0126
E. hope@makehope.org

www.makehope.org

facebook
@hopeinstitute

twitter
@hope_institute

02	I. 서론: 페미니즘 집회의 공명
03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04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04	1) 주최 측 인터뷰 대상자의 속성
05	2) 참여자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06	II. 프레이밍 전략과 '페미시국광장'
07	1. 페미시국광장의 배경
10	2. 10가지 의제와 10가지 프레임의 특징
10	1) 주최 측의 탈중심적 연대구성
12	2) '차이'에 기반 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
14	III. 페미시국광장의 참여 경로
15	1. 페미시국광장 참여 경로
16	1) 직접적 동원
18	2) 간접적 동원
26	2. 미시동원맥락 네트워크 분석
26	1) 소모임의 특징과 기능
27	2) 소모임 네트워크망
30	IV. 결론
32	참고문헌

모 - 든
시 민 이
연 구 자
입 니 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www.makehope.org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02

03

04

04

05

06

07

10

10

12

14

15

16

18

26

26

27

30

32

서론 : 페미니즘 집회의 공명

I. 0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10차례 개최된 ‘페미시국광장’은 페미니즘 시민운동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단일한 의제가 아닌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지속된 집회였다. 여태까지 국내 사회 운동 전반은 ‘효과적인’ 형태로 서 하나의 의제에 많은 사람을 동원

하여 이슈를 집중시키는 것을 일반적인 전략으로 사용했다. 그렇기에 비교적 오랜 기간 여러 의제를 한주에 한 번씩 등장시키겠다는 ‘페미시국광장’은 독특하고 과히 도전적이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페미시국광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면서 이 운동의 기획의도와 참여 경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과연 각각의 집회들은 어떤 의도로 기획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참여자들이 참가했고, 집회는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을까.

본 연구에서는 ‘페미시국광장’이 제시한 10가지 의제가 어떤 방식으로 기획·재현·동원·프레이밍 됐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의제와 기획으로 구성된 ‘페미시국광장’을 분석한다면 광장을 점유하는 새로운 운동의 유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운동의 새로운 형태는 단지 다른 전략 혹은 새로운 주최자의 등장만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광장을 점유하는 형태가 바뀐다는 것은 정치를 상상하는 운동 참여자들의 사고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광장이 다양한 의제가 동시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의지가 퍼져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삶도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참여자들이 운동에 접근하는 것도 방식을 달리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운동이 하나의 정치적 창구로서 자리 잡았다면, 2019년의 한국사회에 ‘사회운동의 사회’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이 모두에게 정치적 창구로써 유효할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광장을 어떤 방법으로 점유하길 상상할까? 광장이 바뀌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질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 페미니즘 운동은 광장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 일상에서 광장까지 나아가는 경로를 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 경로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는지, 왜 그러한 방식인지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사회운동의 코어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 왜 바뀌어야 하는지도 말이다.

이제부터 페미시국광장의 형태와 참여경로를 분석하여 페미니즘 운동이 앞으로 어떤 집회를 구성하며, 사회운동의 코어의 코어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포착할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집회는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를

‘페미시국광장’

운동의	과연 각각의	불러
참여 경로에 대한	집회들은	일으켰을까.
질문을 던졌다.	어떤 의도로	
	기획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참여자들이	
	참가했고,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인터뷰는 크게 주최 측 인터뷰와 참여자 인터뷰로 나눠 진행한다. 첫 번째로 주최 측 인터뷰는 '페미시국광장'의 주최 연합체인 '미투행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내의 단위 중 기획을 맡아 전 10차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3명을 선정하여 그룹인터뷰를 한다.

주최 측의 인터뷰는 데이터 분석 자료와 함께 열 가지의 의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프레이밍을 형성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된다. 그리고 이 시위의 기획 의도와 10차수가 기획되었던 과정을 상세하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시위가 정말로 개별적인 담론을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 각 차수의 기억을 불러내어서 참여자들과 실제로 어떻게 공명했는지를 포착하여 그들과 프레임을 어떻게 합의하였는지 참여자 인터뷰와 다리를 이어낸다.

두 번째로 참여자 인터뷰는 시위의 어떤 의제에 공명하였는지 참여 동기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들의 시위 참여 경로를 인터뷰하고 추적하여 '페미시국광장'의 미시동원맥락의 운동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물 밑에 잠재된 운동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의 삶과 광장정치의 다리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그로 하여금 비로소 일상의 정치가 페미니즘 운동의 코어를 어떤 방식으로 성립하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의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대중 운동의 청사진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최 측 인터뷰 대상자의 속성

구분	성별	지원내용	페미시국광장 주최 차수
참여자 01	여	한국여성민우회	1차, 10차
참여자 02	여	한국성폭력상담소	5차, 10차
참여자 03	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4차, 7차

다음은 주최 측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속성이다. 페미시국광장의 주최가 여러 여성단체들이 연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최소 3인 이상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였으나 해당 논의들이 행사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논의했는지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인터뷰 대상자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FGI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2) 참여자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여러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조직으로 2019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사무국을 맡았고 2020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사무국을 맡는다. 2020년 사무국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주최측 인터뷰 대상자들이 섭외됐다.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응답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배포 방법은 페미시국광장이 주로 웹 홍보물을 올렸던 실명 SNS 매체 페이스북과 페미니즘 관련 행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 모집공고를 올렸다. 그리고 연구자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도 모집공고를 올려 9명이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참여자의 특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한 횟수가 적거나 스스로 페미니스트 정체화를 시작한 지 2년 미만인 집단, 기존 집회에 참여한 횟수가 많고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지 2년 이상 4년 미만인 집단, 여성주의 단체에서 경험하거나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지 5년 이상인 집단으로 분류해 인원을 선정했다. 해당 분류에 가장 적합한 인원을 선정하여 추가 연락을 해서 인터뷰 장소와 일시를 조율해 면담을 진행했다.

표 1.
주최측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속성

II.

01.

페미시국광장의
배경

페미시국광장의 마지막 10차 시위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
구 폐기하라>의 행렬은 서초동 시위와
그 반대 시위의 한 가운데에 나 있는
길을 가로지르며 행진했다. 서초동
집회의 무대 구조물 사이에서 흘러
나오는 조명 빛과 노래, 여러 곳에서

나는 수많은 소리와 서로 다른 외침이 한 공간에 섞여 있었다. 페미시국광장의
행렬은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 그리고 이에 반하는 의제 그 사이에서 강간죄
개정을 외쳤다. 페미시국광장의 주요 의제도 검경 개혁이었다. 하지만 핵심은
강간죄 개정과 성착취 카르텔과 같은 여성외제가 빠진 검경 개혁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삶 도처에 깔린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
시민의 의제가 광장에 꾸준히 등장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임과 동시에 과연
그간에는 여성 의제가 광장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페미시국광장은 2019년 7월 12일부터 2019년 9월 28일까지 3달간 1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회를 기획했다. 이슈와 이슈를 둘러싼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과 제도가
형성·유지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슈로 인해 행위자가 결집하고 사회
운동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행위자들이 스스로 정치적 영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슈를 이용할 수 있다(우은희, 2013).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단일 이슈(single issue)에 대한 집회다.

경우에 따라서 사회운동의 각 부문 별 운동이 함께 이슈파이팅을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를 다중 이슈(multi-issue)집회라고 본다. 다중의제(multi-issue) 조직
은 공유된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개개인의 집합적 행동을 동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페미시국광장은 여성운동이라는 한 부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온전한
다중이슈집회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의제를
차용해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으므로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단일한 이익보다
교차하는 이익들(intersectional interests)을 공유함으로써 연대를 구축하는 방식
으로 집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Mata, Vincente Celestino, 2019).

그렇다면 페미시국광장을 관통하는 공유된 경험과 교차하는 이익들은 무엇
일까. 페미시국광장이 다중의 의제를 설정하기까지는 집회를 기획한 ‘미투운동
과 시민행동’ 소속의 활동가들 인터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여성민우
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
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각각의
집행단위로 참여해 각각의 이슈들을 집회 테이블 위에 올렸지만 10차시 집회
에서는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라는 ‘교차적 이익들’을
관통하는 공유된 의제를 제시했다.

프레이밍
전략과
‘페미시국
광장’

페미시국광장이

다중의 의제를

설정하기 까지는

집회를 기획한

‘미투운동과 시민행동’

소속의 활동가들

인터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참여자 01



- 미투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미투운동 이후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는 지, 장학썬 사건부터 터졌었고 현실의 여성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차별과 폭력들이 아직도 이려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시민들과 대중들과 함께 **무기력한 상태**도 있었어요.

페미시국광장이 발생하기 전인 2018년은 전국적으로 미투운동의 국면에 들어서 있었고 상당히 많은 고발과 문단계 내 성폭력, 영화계 내 성폭력 등 고발이 이어졌다. 이후 많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사건들이 법적인 해결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이려고 있는” 상태에 머물렀다. 성폭력을 비롯해 다양한 여성범죄는 범죄율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조주현, 2019).



- 성폭력을 공론화시켰는데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는 데. **폭행, 협박 이런 것이 구속요건이 되지 않고**, …(중략)…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문제는 검정 개혁이고 강간문화카르텔이고 이런 것들은 **다 아는데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뽉세게 해보자, 뒤집어 열어보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무기력함**이 있지 않나. …(중략)… **매번 하는 집회같이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올라.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을 공론화시켰음에도 “다 아는 데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공론화 이후 처벌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여전히 구속요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 지체될수록 “집회 이후에 변하는 게 있는 것인가”라는 무력감이 들게끔 했다. 주최측은 이런 상황을 “뒤집어엮어”보기 위해 “진짜 문제”를 “뽉세계” 문제제기를 해보기로 결심한다. 벤프드는 사회운동에 대해 “한 사회 또는 집단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혹은 변화에 저항하려는 집합적 시도”라고 정의했는데 페미시국광장은 여전히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저항하려는 집합적인 시도에 해당한다(Benford, Gongware and Valedcz, 2000: 2717, 김경필, 2017: 298 재인용).

참여자 02



-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안이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략)… **예전부터 공론화 됐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는 너무 산적해 있고**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페미시국광장에서 했던 거니까.

참여자 03



- 그냥 늘 하는 **커다란 이야기?** 검찰이 감수성 길러야 한다, 실질적으로 형을 내려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렇게 뽉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면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흥미로운 점은 이 문제제기가 단독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각각의

참여자 01



단체들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뚜렷하고 명징한 해법이 아니라 “커다란 이야기”만을 제시해야 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부터 공론화됐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에 “늘 하는 커다란 이야기”를 해결방안으로 건네는 것이 “뽉족하지 않다”거나 “면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주최 측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연합해 ‘미투운동과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페미시국광장을 시작했다.

- 퍼포먼스들을 각 회차마다 했었거든요. 그게 참여율을 높이고 **분노를 담아서 하는 것들이 그런 무기력함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일단 슬로건이 검정개혁이었거든요. 총 검정개혁. 흠. 검정개혁이 맞긴 한데 **각 단위마다 연결**되어 있는 의제들이여가지구.

참여자 02



- **원 없이 강간**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중략)…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해서 …(중략)… **어디에도 우리가 끼어들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의 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얘기하고, 소리쳐서 바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최 측은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는” 현실에서 “아직도 이려고 있는” 무력감과 분노의 감정들을 페미시국광장의 퍼포먼스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했다. 퍼포먼스를 비롯한 각각의 의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강간죄 개정이라는 요구를 하기까지 “소리쳐서 바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원 없이 강간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것은 중요했다. 여성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이름이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적 현실 때문이다(Robin West, 1989). 그래서 웨스트는 “전체 법문화의 조력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의 성별 특유한 고통의 느낌이 반드시 묘사되어야 한다.”고 한다(Robin West, 1989, 양현아, 2018: 219 재인용).



- 당시에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처럼 되게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그 때 막 몰아닥쳐서 이걸 **개별 사안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같이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중략)… 아무도 내 사건을 그게 강간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나는 강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2차 피해를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게 다들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제로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참여자 03



- **젠더문제가 굉장히 뒤로 부차적으로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야한다고 말하는 서초동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젠더문제라든지 이제까지 페미니스트 주장했었던 검찰개혁의 핵심문제라는건 이것이 **빠져있었던 집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개별사안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다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제”가 돼야 했다. 연결됨을 보여주기 위해 주최측이 채택한 전략은 여러 단위가 연합해 여러 의제를 주제로 시위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젠더문제가 굉장히 “부차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데다가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는” 현실에서 “아직도 이려고 있는” 무력감과 분노의 감정들은 여러 여성단체로 하여금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걸집했다.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집회 개최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이뤄졌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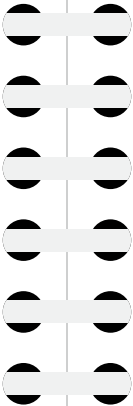
1) 주최 측의 탈중심적 연대 구성

10가지 의제와 10가지 프레임의 특징

페미시국광장이 독특한 점은 여성단체들이 연합해 두 달간 페미니즘 내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10가지의 의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차수별로 집행단위를 다르게 구성했다. 집회의 내용들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었으나 일괄적으로 하나의 사무국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차수를 집행단위가 맡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만큼 운동 역시 분화되고 분산되는데 이에 따라 탈중심화와 자율성 및 자치 확산이 이뤄질 수 있다(정태석, 2015). 페미시국광장은 다원화되고 분화된 여성운동 단체들이 다시 새로운‘연대’를 구축해 공통적인 의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 구체적으로 집행단위와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 차수별 집행단위 및 상세내용 - 자료제공: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차시	일정	상세내용	집행단위
01	7/12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	한국여성민우회
02	7/19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 공조세력 검경을 갈아엎자!	한국여성단체연합
03	7/26	‘감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	한국여성의전화
04	8/2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05	8/9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06	8/23	‘검경개혁 여자들이 한다!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자 03
→

07	8/30	‘국산 아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08	9/6	일상의 남성카르텔, 우리가 부순다!!	한국여성노동자회
09	9/20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	전국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전국연대
10	9/28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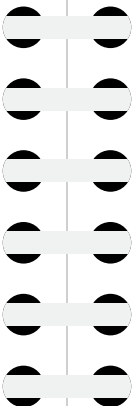
집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2019년 7월 8일에 1차 집회 포스터가 올라오면서 1차부터 5차까지의 집회 내용이 안내됐다. 이후 2019년 8월 13일에 10차까지 진행한다는 포스터가 다시 공지돼 구체적인 내용은 총 2차례에 걸쳐 집회의 윤곽이 잡혔다.

- 유기적으로 1차부터 10차를 유기적으로 통으로 한 것은 아니고 …(중략)… 각 단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일정을 정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앞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서, 10차는 다 같이 모여서 꺾기를 한다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주최 측 인터뷰 과정에서도 10차례의 의제를 동시에 선정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0차례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집행단위가 진행할 주차를 정한 후 “10차는 다 같이 모여서 꺾기를 한다”는 일정을 고정하였다. 그렇다면 집회가 10차례에서 끝을 맺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 그래서 10차례를 하면서 마지막을 10차로 끝낸 것은 더 이상 하기가 사실은… (말늘임) 활동가들 피로도가 있고 …(중략)…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차 정도로 의미있게 마무리를 해보자.

“활동가들 피로도”에 따른 “현실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집회를 진행하면서 활동가들에게 ‘일’로서 10차 이상의 집회를 꾸려나가는 일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사회운동을 끌어나가는 주체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획을 해나가는 것이지만 외부적인 구조를 향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어려움과 함께 내부적인 어려움도 동시에 겪다 보면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다. 페미시국광장 이후에도 집회를 지속하기 위해서 10차에 집회를 마무리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참여자 02
→

2) '차이'에 기반 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

참여자 03



- 뭐 되게 날 것의 구호가 있었는데(웃음) **속이 시원**했고... 그 당사자 분들이 거침없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쉽지 않았잖아요. 거리에서 한복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중략)**... 미투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주최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자신감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감 있게 이어지면서.

참여자 02



- 본인의 언어로 쓴 발언을 들으면서 조금 몽클하기도 하고 그랬던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됐던 집회기도 했고. **되게 신나고 재미있게** ...**(중략)**... 되게 다 같이 모였을 때 신남이 느껴졌던 집회였어요.

참여자 01



- 소리지르면서 우셨는데 같이 **바로 울었었거든요**. 그냥(말 늘임) 날 것의 언어로 말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절규하고. 그런 거에 저는 또 다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활동을 하고 집회를 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고.

다른 주관단체의 집회 참여시 기억에 남았던 순간에 대한 질문에 주최 측 인터뷰 대상자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 주최 측은 단순히 집회를 주최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로서의 속성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집행단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활동가 본인이 속한 단체가 아닌 경우, 참여의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단체에서 기획한 집회에 참여하면서 “속이 시원”한 것을 느끼기도 하고 “신나고 재미있게”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같이 바로 울었”던 경험을 하기도 했다. 집회를 주관한 활동가들이 이처럼 집회에서 다시 에너지를 얻고 활동과 집회를 하는 이유를 찾으며 원동력을 얻으면서 집회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는 활동가들이 10주차 동안 릴레이 집회를 열면서 소진되고 지쳐감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의 지형 안에 새로운 운동 방식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참여자 02



- 집회들을 많이 하면서 수많은 활동가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거기서 나누었던 **기쁨, 연대감 그리고 공동체 확장** 이런 의미도 있었고 ...**(중략)**... 그래도 집회 안에서 많은 페미니스트들과 활동가들이 모였을 때 **서로한테 주고받는 에너지들이 정말 되게 강력한 연대의 힘**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페미시국광장도 왜했냐면 사실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중략)**... 앞으로는 ‘미투시민행동’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서의 연대가 아니라 **사안별로 기민하게 연대를 구축**하는 그런 방식의 연대가 되면 좋겠다고 평가가 정리가 됐었어요.

참여자 03



이들에게 “공동체의 확장”은 감정을 교류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얘기”를 함께 나누는 것에서도 드러났다.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주의 단체들 내부에서도 다양한 결로 집단이 나뉘었다. 그러나 페미시국광장을 통한 연대에서 활동가들은 ‘통합’이 아닌 “강력한 연대의 힘”을 느꼈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들의 연대는 “‘미투시민행동’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서의 연대가 아니라 사안별로 기민하게 연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여성단체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각자의 얘기를 쭉 하고** **시차를 둘 수 있다**는 건... 그건 되게 성공적인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새로운 틀이 생긴 것** 같아요. ...**(중략)**... **여성운동을 보통 부문운동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여성 단체들이 각 단체들이 집중하는 화제들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각자의 활동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중략)**...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어... **확장을 도모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안별로 기민하게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각자의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시차를 둘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에 페미시국광장에서 주관 을 맡은 각각의 단체들은 페미시국광장을 하나의 통합된 양식으로 진행하는 집회가 아니라 서로가 “확장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단일성’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벤 하비브와 아이리스 영이 “타자로서의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보편성”이 무엇 인지 질문한 것과 연결돼있다.(Benhabib, 1996; Young, 2000; 이선미, 2006: 163).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에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문제들이 하나의 문제 해결 틀에 들어가 하나의 정답으로 도출되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이 서있는 위치를 인식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 연대체는 왜 여성운동이 부문운동이어야 하는지, 어쩌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져준다. 페미시국광장은 해결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성차별, 성착취 카르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최종의 전면에 내세우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각 의제를 무리하게 하나로 옥여넣지 않는 선상에서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며 각 주차별로 서로 서로의 무대가 되어주었다. 각 문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그 핵심에는 강간죄가 있다는 메시지는 여성운동이 중심운동이 아닌 ‘부문운동’으로서 ‘부차적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광장이 더 이상 정치적 창구가 되지 않을 때 꺼낸 새로운 방식이자 도전이었던 것이다.

페미시국
광장의
참여
경로

III.

활동성의 배경에는

페미니즘 이슈를

접할 수 있는

일상적 소모임이나

페미니즘 이슈에

주력하는 소모임

혹은 단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존재했다.

01.

페미시국광장
참여 경로

이런 형태의 페미시국광장에서 참여자들은 어떻게 광장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페미시국광장에 참여한자들의 인터뷰 결과 그들의 참여 경로는 크게 직접적인 동원과 간접적인 동원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직접적인 동원은 주관단체의 요청이 집회 참여의

주요 동기가 된 케이스다. 이는 주관단체가 발언을 요청한 경우와 행사진행 도움을 요청한 경우로 나뉜다. 두 번째로, 간접적인 동원의 경우 각각의 참여자들은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집회에 참여한 케이스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 참여자 동원 유형

직접적 동원	한국여성단체연합(2차)	발언 요청	참여자 A
			참여자 C
간접적 동원	한국여성노동자회(8차)	피켓 들기 및 진행 도움 요청	참여자 D
	대학 내 페미니즘 활동		참여자 B
			참여자 C
	대외 페미니즘 활동		참여자 E
			참여자 F

1) 직접적 동원

참여자 A



- 단체 활동가 중에 한 분이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저한테 발언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중략)… 그냥 제 경험과 관련해서, 남성연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좀 발언을 했고 …(중략)… 그래서 결국 어디든지 버닝썬이 있다는 것. 심지어 학교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참여자 C



- 제가 ○○님이랑 작년 초반에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이라는 텀블벅 프로젝트 하실 때 제가 인터뷰로 참여를 했어가지고 그때 알게 된 사이인데. 그리고 그냥 저를, 저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때 연으로 연락이 왔어요.

참여자 A와 C는 페미시국광장의 2차 시위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에서 주관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에게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 참여자로서 발언 요청을 받아 본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 동원이라는 말이 참여자들이 주관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에 소속된 운동가로서 참여했다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 주관단체의 참여 요청이 직접적 참여 동기일지라도 참여자들의 페미시국광장 이전의 페미니즘 활동 자취의 맥락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면 참여자 A와 C가 발언을 요청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학내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지속해온 맥락이 있어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참여자 A



- 페미시국광장에서 나뉘던 의제들이 다 거의 다 연결돼있는 사안들이잖아요. …(중략)… 그것 관련해서도 성평위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자본주의 안에 서 여성이라고 버닝썬 사태 관련해서 어떻게 여성이 재화화되는 지에 관련해서 오픈세미나를 열었고 그거를 실제로 시위를 나가고 학교에 돌아와서도 활동을 연결시켜서 했던 것 같고 …(중략)… 여기가 굉장히 안전하고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못 받거든요. …(중략)… 아무도 여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게 화나고 무서웠어요.(침묵)

참여자 A는 학내 안에서조차 여성의 삶이 안전하게 지탱되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는 학내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세미나를 꾸준히 열고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그곳은 여전히 “무서웠다. 참여자 A는 대학에 입학한 뒤 노동의제에 관한 실천단 성격을 띤 ‘헬로조선프로젝트’와 자유인문캠프라는 학술적인 모임에 가입, 이후 학내 단체인 총학생회 산하의 성평등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수

①
교내 총학생회 산하의
성평등 위원회

행하면서 오픈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오픈세미나를 직접 준비하면서 버닝썬에 대한 의제를 공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학내의 일상에서 문제의식과 함께 이를 타개하고자 성평등 위원회에서 여성주의, 버닝썬 세미나를 진행하며 페미니즘에 관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페미시국광장 2차 시위와 연계되어서 주관 단체에게 현장의 발언을 요청받게 된 것이다.

참여자 C는 학과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 임원 활동을 했는데, 페미니즘 이슈를 주요 가치로 두고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학년 때 참여한 인권 동아리 ‘가치’라는 소모임에서 페미니즘 이슈 커리큘럼을 짜고 같이 토론했는데 이 경험이 스스로 페미니즘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주요한 그룹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학생회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활동가와 일했는데 이후 페미시국광장에서 발언자로 요청을 다시 받게 되면서 2차 페미시국광장에 참석하게 됐다.

그림 1

- 참여자 A
생애 주기적
참여경로

그림 2

- 참여자 C
생애 주기적
참여경로

1) 직접적 동원

참여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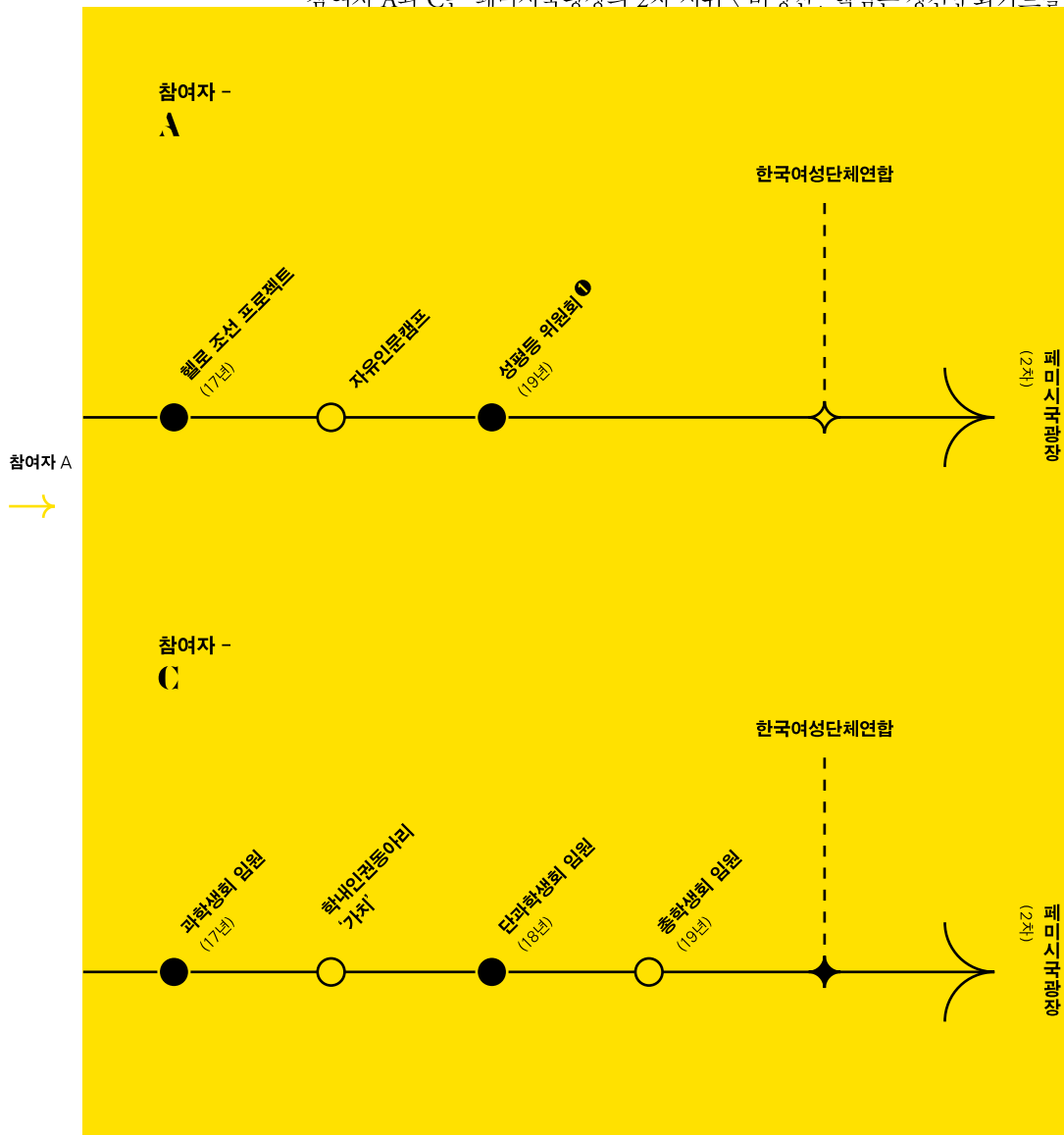
- 단체 활동가 중에 한 분이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저한테 발언 부탁을 해주셔서지고. ... (중략) ... 그냥 제 경험과 관련해서, 남성연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좀 발언을 했고 ... (중략) ... 그래서 결국 어디든지 버닝썬이 있다는 것. 심지어 학교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참여자 C



- 제가 ○○님이랑 작년 초반에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이라는 텀블벅 프로젝트 하실 때 제가 인터뷰로 참여를 했어가지고 그때 알게 된 사이인데. 그리고 그냥 저를, 저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때 연으로 연락이 왔어요.

참여자 A와 C는 페미시국광장의 2차 시위 <버닝썬> 핵심은 갯간문화카르텔



①
교내 총학생회 산하의
성평등 위원회

행하면서 오픈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오픈세미나를 직접 준비하면서 버닝썬에 대한 의제를 공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학내의 일상에서 문제의식과 함께 이를 타개하고자 성평등 위원회에서 여성주의, 버닝썬 세미나를 진행하며 페미니즘에 관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페미시국광장 2차 시위와 연계되어서 주관 단체에게 현장의 발언을 요청받게 된 것이다.

참여자 C는 학과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 임원 활동을 했는데, 페미니즘 이슈를 주요 가치로 두고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학년 때 참여한 인권 동아리 '가치'라는 소모임에서 페미니즘 이슈 커리큘럼을 짜고 같이 토론했는데 이 경험이 스스로 페미니즘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주요한 그룹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학생회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활동가와 일했는데 이후 페미시국광장에서 발언자로 요청을 다시 받게 되면서 2차 페미시국광장에 참석하게 됐다.

참여자 D



- 한국 여성 노동자회 주체였거든요 8차가. 그래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가분들이 그날 자원봉사도 해주셨음 좋겠고 "좀 많이 와 달라." ... (중략) ... 20대 그 모임(정당 내 소모임)이 원래 계속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 오는 분들 다 같이 왔음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같이 갔죠.

참여자 D는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일상의 남성카르텔, 우리가 부순다!!> 8차 시위 때 행사 진행 도움을 요청받았다. 그는 20대 소모임에 속하기 전에 학내에서 정통좌파조직과 학내 소모임 '포혜'에 속해있었으나 나오면서 그 이후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20대 여성모임에 가입해 활동을 지속했고 학내 소모임인 반성폭력 반성매매 모임 '반'을 만들어 활동했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 D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요청을 받았을 때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소속 상근활동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20대 소모임 그룹의 참여자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참여자들이 주최 측에 직접적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참여 동기가 되었다고만 볼 수 없다. 이들의 일상의 고민이 동기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8차 집회의 의제에 관련된 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참여자 D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 그날 이제 (8차 집회가) 일상의 남성 카르텔 그게 이제 노동문제랑 연관 지어서 한 거였는데. 저는 어쨌든 그 전에 활동했던 조직이 노동이슈가 있던 조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나온 이후에도 계속 노동과 여성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까가 저의 항상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진단적 프레임: 스노우와
벤포드가 사회운동의
프레임 실험이 수행
해야하는 세 가지 기본적
과제로서 제안한 개념이다.
진단(diagnosis)을 통해
“사회 현실의 어떤 측면이
문제가 되었으며” “어떤
사회적 기제 또는 집단들에
의해 생겨나고 계속되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인식틀”이다. (Snow and
Benford, 1988:199,
신진록, :2015: 77)

② 진단적 프레임: 스노우와 벤포드가 사회운동의 프레임링 실천이 수행해야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과제로서 제안한 개념이다. 진단(diagnosis)을 통해 "사회 현실의 어떤 측면이 문제가 있으며" "어떤 사회적 기제 또는 집단들에 의해 생겨나고 계속되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인식"이다. (Snow and Benford, 1988:199, 신진옥, :2015: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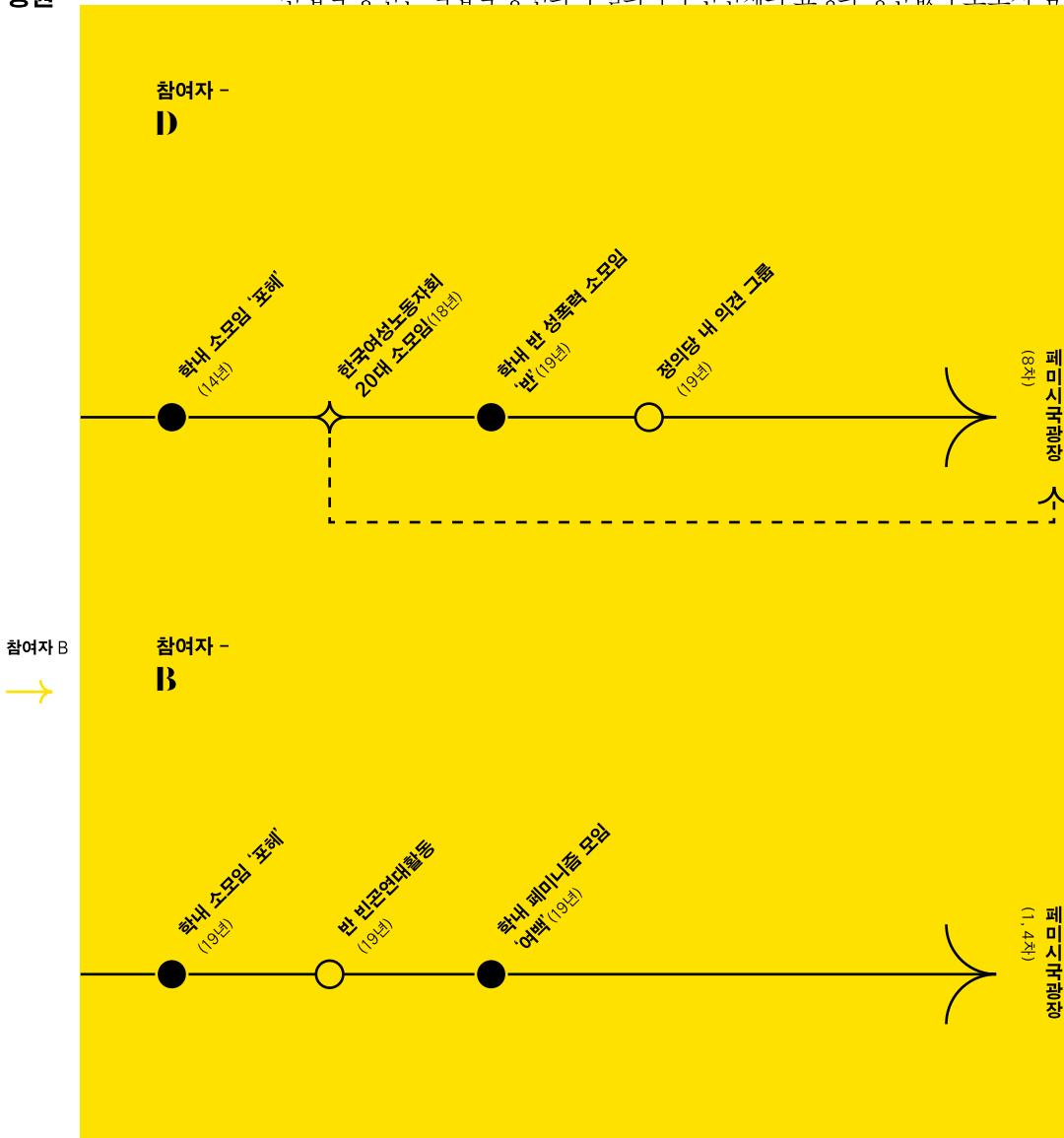
2) 간접적 동원

참여자 D는 노동의제를 주로 다루던 학내 소모임 조직에서 나왔으나 여전히 노동의제가 그의 활동의 핵심 이슈였다. 그것이 페미니즘 소모임을 통해 여성 문제로 더 깊게 확장되었고 참여자 D의 활동은 여성 노동 의제라는 부분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그 경로가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만든 20대 소모임이었다.

이렇듯 페미시국광장의 참여가 주관단체 동원의 직접적 동기가 될지라도 기존의 '동원' 개념과는 맥락이 다르다. 자, 왜 참여자들의 생애적 경로를 같이 봐야 하는지 다시 물어볼 때가 왔다. 그 답은 페미시국광장의 참여는 이전의 집회 동원과는 달리 그들의 페미시국광장 참여 이전의 운동적 생애 자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이전의 흔적을 쫓아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 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1) '자발적'이기에 보이지 않는 동기

간접적 동원은 직접적 동원과 구별되어 주관단체의 요청과 상관없이 오로지 참



참여자 B



③ 포혜: 대학 내 사회학과 학회. 주로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 등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해 한 학기동안의 커리큘럼을 짜고 텍스트를 읽은 뒤 발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모임이다.

④ Robert Benford and David A. Snow.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i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11-639.



말했다. 그는 대학 입학 후 학내 소모임 '포혜'③에 들어가게 되면서 페미니즘을 더 가까이 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미니즘 서적을 함께 읽고 발제하는 '여백'에도 연속적으로 참여했다.

- 집회에 참여하거나 어딜 가든가 해도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한 이후 부터는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중략)... 그런데 **최소한 여기에 있는 동안 이 틈에서는 안전하겠지, 이 사람들과는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질감?**

사건에 대한 프레임은 그것이 사회구조적으로 구축된 문제임을 앎과 동시에 나의 생애의 경험과도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표현된다. 이 과정이 프레임의 표현인 것이다.④ 참여자 B가 학내 소모임 '포혜'에서 나눈 것도 이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각 사건에 대해 구성원과 대화를 나누며 일종의 담론적 과정을 거쳤고 버닝썬과 양진호 카르텔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었다. 참여자 B는 각 사건이 남성 카르텔의 문제임을 인지하면서 여성인 자신의 삶과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참여자 B는 시위 전에 분노를 느꼈다고 했는데, 그 감정도 이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소모임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획득했고 이것이 페미니스트 정체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요인은 "함께 할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 덕분이었다. 과거 문제의식이 있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충분하지 않아서 부족했던 지점들은 이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회학과에 입학한 뒤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담감이 덜해"졌다.

나아가 그는 페미시국광장의 참여로 인해 사건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진단적 프레임을 획득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을 짜는 처방적 프레임을 얻기 위해 고민했다. 즉, 학내 소모임은 참여자 B가 페미시국광장의 이슈에 참여할 동기로서 버닝썬과 양진호 카르텔의 문제를 진단하고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을 주는 경로로서 작용했다. 그런데 이 경로는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없다. 페미니즘 집회에 참여하는 가장 강력하고 자발적인 동기는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는데 어느 순간 느껴서 '내가 페미니스트인 것 같아' 한 것은 ... (중략)... (학교에) 들어와서 학회를 하게 된 게 제일 큰 계기인 것 같은데 ... (중략)... 저는 예전에 상대가 부족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부족했다면 학회를 함께 하게 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제 페미니스트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회를 참가했을 때와 처음 참가했던 페미니즘 집회 ‘해화역 시위’^⑤의 경험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 그 단체(‘포혜’)에 있을 때도 집회에는 계속 갔지만 거의 동원을 하니까. 거기
는 이제 뭐 무슨 집회 한다 하면은 이제 몇 명이나 올 수 있냐, 인원수합을
해서 보내야 되고. …(중략)… (해화역 시위가) 해방감은 더 있긴 했죠. 책임을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니니까 …(중략)… 질적으로 너무 다른 참여였어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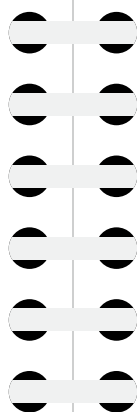
참여자 D는 학내 소모임 ‘포혜’에서 집회에 참여한 경로로 처음에는 선배의 주도하에, 그 이후에는 본인이 후배들을 인솔하여 동원할 수 있는 참여인원을 수합하는 과정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때의 집회 참여 동기는 인솔에 대한 책임감과 일종의 관성적 과정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페미시국광장을 포함하여 페미니즘 집회에 나가는 참여자들의 동기와는 다르다. 본인 스스로 궁금하여 듣고 말하기 위해 집회 나가기를 결심하는 것은 타인의 인솔이나 인솔하기 위해 가는 것과는 “질적으로 너무 다른 참여”가 된다. 이때 주목할 것은 인터뷰 한 페미시국광장 참여자들은 집회를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 집회 참여에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누군가와 함께 집회에 참여할 때는 상대방이 같이 간다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데 너 갈래?” 정도의 약속으로 동행했다. 이것은 아래 참여자 B도 마찬가지다.

- 저는 원래 시위(페미시국광장)를 가게 된 것도 혼자 갔던 거고, 사실 혼자 시위
를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사실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중략)… 페미시국
광장에 갔을 때는 물론, 그 때도 혼자 갔지만 조금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달까? 처음으로 간
페미니즘 시위고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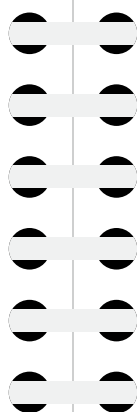
참여자 B는 페미시국광장 이전에도 집회에 참여해왔던 경험이 있었고 혼자 가는 것에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위에서 말했지만 이 특성은 참여자 B의 것만이 아니라 인터뷰 참여자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집회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자들로서 ‘활동하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집회 참여의 핵심동기로,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아닌 집회를 갔을 때 내가 낼 목소리와 다른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같은” 것이 될 수 있으리라는 예측 혹은 기대감과 이어진다.

- 나도 안가면 500명이 채워지지 않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간 게 있었고. …(중
략)… 아 그래도 또 다른 동지도 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되게 위로가
되긴 해요. 되게 반갑더라구요. 왜냐면 연락하고 만나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참여자 D



참여자 B



참여자 F



참여자 B는 소모임이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해 ‘포혜’라는 소모임에서 페미니즘 이슈에 접하고 나서 페미니즘 소모임 ‘여백’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점차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확장시켰다. 학내 소모임 내의 구성원 간의 신뢰 형성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개인은 그 안에서 자신을 탐색할 기회를 찾아낸다. 이 신뢰에 기반한 ‘안전한’ 공동체가 생기면 개인들은 정체화의 벽을 넘어서기 한걸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여자 B는 소모임에서 신뢰 기반으로 형성된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지지기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이후 ‘페미니스트’로 스스로를 명명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페미시국광장에 참여하게 된 ‘자발적’ 동기의 핵심이 된다. 여성 의제를 동감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말했듯 주변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인정을 통해 한 사건이 나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본인의 언어를 통해 구조적 문제로 치환하기를 욕구하고 더욱이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진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하여금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이와 함께 말하고 행동하기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이들의 ‘자발적’ 동기란, 일상에서 가져왔던 자신의 고민을 소모임 활동을 거치면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했을 때 이를 자신의 언어로 체득하기 위해 집회에 나아가는 것이다.

- 저한테는 2019년도가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거든요. …(중략)… 그런 변곡점
이 있던 해에서 …(중략)… 이제 새로 생기게 된 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위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활동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요.

페미시국광장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발화되는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에 공감하고 말하는 자로서 그 의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있었다. 그리고 페미시국광장에서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페미니스트’로서 관련 의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이것이 페미시국광장의 참여 경로이다. 페미시국광장의 참여 경로에 소모임이 작동하는 방식은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모임 안에서 담론적 과정을 거쳐 문제를 진단 한 후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공고해질 때 활동 지속에서 나오는 ‘자발적’ 동기가 강력하게 작동된다.

앞서 말했듯 이들의 동기를 이전의 집회 동원과 직접 비교해보면 왜 이들의 참여경로가 정체성과 맞물려 스스로 집회에 참가하는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아래는 참여자 D가 학내 소모임 ‘포혜’에서

참여자 B



⑤ 2018년 5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 측의 주도로 불법촬영에 대한 의제로 해화역 앞에서 열린 시위. 첫 시위에 1만 명이 모였으며 이후 2018년 12월까지 총 6차례의 시위를 열었고 마지막 시위에서 6만 명이 모였다.

참여자 F의 이 인터뷰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발성의 토대 위에서는 누군가의 직접적인 연락을 받거나 직접적인 제스처로 같이 가지 않아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게 아니”어도 집회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가야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간 집회에서 약속하지 않았지만, 본인과 같은 마음으로 온 다른 이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우연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그렇기에 참여자들은 다른 집회에 또 다시 참여할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페미시국광장에서 드러난 페미니즘 운동 네트워크의 비가시적 망이자 코어다.

2-2) 옆에 있지는 않지만 멀리 있어도 같은 ‘동지’

- (2차 때)가게 된 이유는 이게 엄청 중요한 이슈인데 장학선^① 이렇게 페미시국광장에서 같이 하는데 거의 버닝썬만 이렇게 아주 가십으로 소비되고 두 개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페미시국광장 계속한다는 거 자체도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라도 계속 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부터 갔어요.

- 작년 38 때였다. 그 불뽕(불꽃페미액션)에서 버닝썬 집회를 했었거든요. ... (중략) ... 우리가 클럽들을 다 행진하면서 돌았거든요. ... (중략) ... **버닝썬은 되게 저한테는 제가 굉장히 분노할 만한, 그 약물 강간에 대한 게 되게 많다.** 라는 거를 예전에는 몰랐는데 연구하면서 알게 되가지고. 근데 그게 수면 위로 **절대 안 올라오는 거예요.** ... (중략) ... 그래서 좀 분노가 그 때의 분노가 같이 이어져서 왔던 거 같고.

참여자 F는 “수면 위로 절대 안 올라오는” 의제는 “분노가 같이 이어져서 왔던”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분노했다. 또한, 참여자 E는 페미시국광장의 의제에 동감할 뿐 아니라 의제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나라도 계속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페미시국광장 직전에 생긴 집회 동기가 아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성문제를 ‘내가 집회에 나가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는 그 이전부터 오래간 활동을 지속해온 페미니스트 정체성으로서 축적해온 것이다.

참여자 E와 F는 영영페미니스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온 이들이었다. (단체 상근 활동가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영영페미니스트 단체는 20~30대 여성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져 움직이고 있는 단체며 기존의 운동 단체들처럼 상근자를 둔 조직이 아니라 비상근 활동가들로 구성된 등록되지 않은 단체다. 그리고 이 활동단체들의 중심에는 마찬가지로 일상적 소모임 활동이 있었다.

참여자 F



- 8차 때 왜 갔냐면 제가 아프리카 댄스를 해요. ... (중략) ... **그 공연 준비를 하시면서 아 여러분들도 꼭 오셔야 된다.** 근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 꼭 가야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게 돼서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참여자 F는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페미니스트들의 아프리카 댄스모임에 가입하여 같이 공연을 만들어가던 찰나에 댄스 선생님의 퍼포먼스 진행이 걱정되어 8차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참여자 E



- 불뽕(불꽃페미 액션) 에서 주관했던 그 신촌에서 ‘밤길 걷기’ 했던 그런데도 갔었고. 그리고... 월경페스티벌 같은 것도. 근데 불꽃페미액션이 주최해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갔는데** ... (중략) ... 부스에서 우리 이제 상의탈의하고 사진 찍을 건데 같이 하실 분~ 막 이렇게 불렀어요. .. (중략) .. 그 이후에 강릉이었나? 어디 **찌찌해방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같이 가고. ... (중략) ... 제가 서울 갈 때면 (중략) (서울 사는 활동가 친구들의 **하니까**

그림 5

- 참여자 F
생애 주기적
참여경로

그림 6

- 참여자 E
생애 주기적
참여경로

참여자 E



참여자 F



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을 남성 카르텔로서 묶은 프레임

어달리
트 활동
‘올프’에
여성의
역 영영
경페스
기 등의
을 지속

달리기
- 부산
연을



참여자 F의 이 인터뷰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발성의 토대 위에서는 누군가의 직접적인 연락을 받거나 직접적인 제스처로 같이 가지 않아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게 아니”어도 집회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가야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간 집회에서 약속하지 않았지만, 본인과 같은 마음으로 온 다른 이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우연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그렇기에 참여자들은 다른 집회에 또 다시 참여할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페미시국광장에서 드러난 페미니즘 운동 네트워크의 비가시적 망이자 코어다.

2-2) 옆에 있지는 않지만 멀리 있어도 같은 ‘동지’

- (2차 때)가게 된 이유는 이게 엄청 중요한 이슈인데 장학선^⑧ 이렇게 페미시국광장에서 같이 하는데 거의 버닝썬만 이렇게 아주 가습으로 소비되고 두 개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페미시국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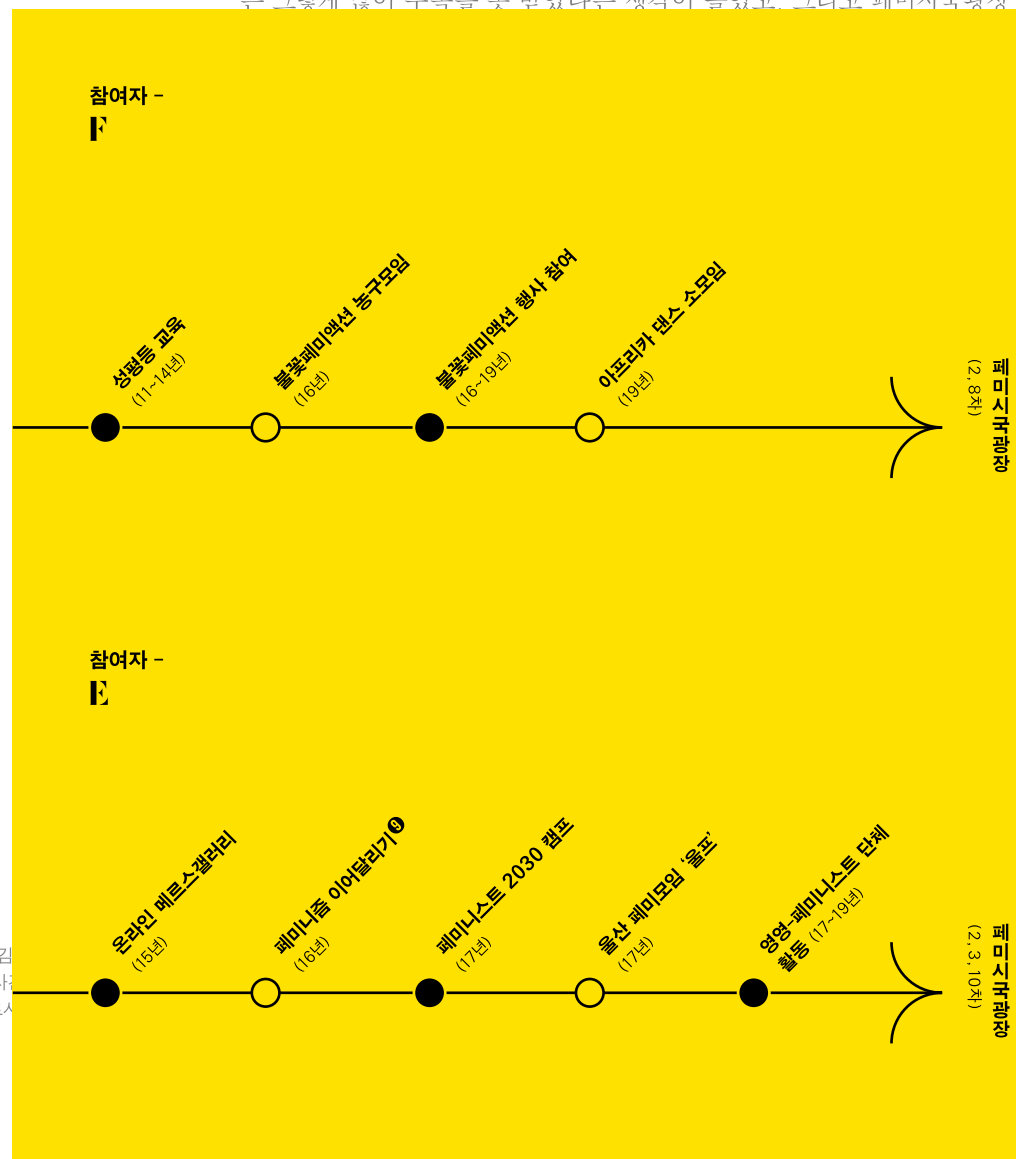
참여자 E



참여자 F



⑧ 장자연, 김버닝썬 사건 카르텔로사 프레임



참여자 F



참여자 E



- 8차 때 왜 갔냐면 제가 아프리카 댄스를 해요. ... (중략) ... 그 공연 준비를 하시면서 아 여러분들도 꼭 오셔야 된다. 근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 꼭 가야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게 돼서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참여자 F는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페미니스트들의 아프리카 댄스모임에 가입하여 같이 공연을 만들어가던 찰나에 댄스 선생님의 퍼포먼스 진행이 걱정되어 8차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 불펄(불꽃페미 액션) 에서 주관했던 그 신촌에서 ‘밤길 걷기’ 했던 그런데도 갔었고. 그리고... 월경페스티벌 같은 것도. 근데 불꽃페미액션이 주최해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갔는데 ... (중략) ... 부스에서 우리 이제 상의탈의하고 사진 찍을 건데 같이 하실 분~ 막 이렇게 불렀어요. .. (중략) .. 그 이후에 강릉이었나? 어디 찌찌해방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같이 가고. ... (중략) ... 제가 서울 갈 때면 .. (중략) .. (서울 사는 활동가 친구들의) 집에서 이제 재워주고. ... (중략) ... 불꽃페미액션 사람들은 항상 활동을 하니까 계속 얼굴 보게 되고.

참여자 E는 16년도에 대구-부산-울산 지역에서 하던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강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페미니즘 강의, 17년도에 영영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주최한 2030 페미니스트 캠프 그리고 울산의 페미니스트 모임 ‘올프’에 참여하게 된다. 그 모임과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페미니즘 행사, 3월 8일 여성의 날 집회 등에 버스를 함께 대절하여 참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울 지역 영영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도 친분을 다지게 된다. 그러면서 17년도부터 월경페스티벌의 “찌찌해방^⑦”, 페이스북 코리아의 항의 기자회견^⑧, 신촌 달빛 걷기 등의 서울 지역의 행사 주관에 다수 참여하면서 영영페미니스트로서의 활동을 지속하게 되었다.

⑦ 2018년 5월 26일, 여성환경연대에서 월경의 날을 기념하여 <2018 월경페스티벌>을 개최, 이에 불꽃페미 액션은 여성들의 노브라 실천과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음란물’의 이미지에 저항하기 위해 <찌찌해방만세>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찍었다. (출처: 불꽃페미엑션 페이스북,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보도자료)

⑧ <찌찌해방만세>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5월 29일, 페이스북코리아는 사진을 게시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사진을 삭제했고, 이에 불꽃페미엑션은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서 차별적 규정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는 음란물이 아니다’ 퍼포먼스로 상의를 탈의하고 찌찌를 해방시키는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불꽃페미엑션 페이스북)

⑨ 2017년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강연 사업, 대구-부산-울산 지역에서 여성주의 강연을 릴레이로 열었다.

참여자 F



- 나는 진짜 그냥 한자리라도 채워야지 되는 **의리감**으로 갔는데 ... (중략) ... 웬지 나도 안가면 그러니까 500명이 안모일 건 알았는데 근데 그때 갔을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200명도...** (못 모이고) ... (중략) ... **이 많은 회차 중에 내가 한 번은 가야된다, 그 의무감은 있는 거예요. '언니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한 번은 가야지.'** 약간 **이런 동지애라고 해야 되나?** ... (중략) ... **아무 리 생각해도 이 여러 번은 못 가겠고 한 번은 가야된다.** 의 의무감이 있는 거고.

참여자 E



- 일단 저는 약간 그 주최 단체도 우리라는 범주 안에 있는 이유가 **어쨌든 저도 지금의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뭔가 기획해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좀 더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음... 좀 더 공감대가 있고 **우리라는 범주 안에 페미니스트도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동지는 아니지만 멀리 있어도 같은 동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 같아요.**

영영페미니스트로서의 활동의 지속을 통해 페미시국광장에 참여한 E와 F에게는 집회 당시 외부인으로서의 내부인적 순간을 겪었다. 참여자 F 역시 페미시국광장에 참여할 당시에 주관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주관단체들에 대한 “의리감” 때문에 첫 번째 참여를 결심했고 인원이 적게 모일 것 같아 “속상한”마음이 들어 두 번째 참여를 결심했다. 참여자 E가 직접 페미시국광장을 기획에 참여하지 않아 외부인의 위치에 있었지만 동시에 페미니즘운동 네트워크의 “내부인”으로 위치하면서 “나도 가야지”라는 “의리감”은 “속상한”마음으로 드러났다. 참여자 E와 F는 참여자였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최측의 입장에 긴밀하게 가 닿고 있었다. 지금은 참여자지만 언젠가는 크고 작은 행사의 주최자가 될 것이며 지금의 주최자는 다시 그때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서로의 인식이 외부자로서의 내부자적 순간을 만든 것이다.



- 그 강간죄 개정할 때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고. 그 그러니까 최협의설¹⁰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좀 많이 됐, 많이들 알잖아요. 그 폭행과 협박 없으면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냐, 동의로 바뀌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아는데. 그 시위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근데 낙태죄 때라는 달리 이게 뭔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는 게 안 보이니까 그게 극복되지도 않고.**

강간죄 개정을 사회의 중요 의제로 올릴 만큼 이들에게 정치적 기회 구조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여자들도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수록 이를 타파할 때 내가 같이 해야한다는 생각이 “의무감”으로 이어

⑩

정치적 기회 구조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사회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특정 자원의 배치, 제도적 배열, 사회운동의 역사적 선례 등”으로서 특정 사회운동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제한하는 정치의 구조이다. Herbert Kitschelt. 1986.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57-85.

졌다.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단순히 주최자와 참여자의 구분을 넘어 페미니즘 운동 네트워크에 소속된 개인들이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기회 구조^⑩와 이에 대한 인식은 ‘왜 페미니즘 네트워크망이 소모임으로 이뤄졌는가’라는 물음의 답변으로 이어진다. 페미니즘 운동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문제제기들은 실상 제도권 정치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외면할 수만은 없다. 나의 일상이 사회의 정치적 사안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창구로 이를 일상 속에서라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고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광장에서 그러나 각자의 일상 공간에서, 학교 내 소모임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비록 답답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일지라도 동시에 사회 이슈를 일상 속에서 해결해나가는 활력이 되고 다시 일상에서 집회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었다. 이것이 소모임 활동의 계기이자 지속성을 담보한다.

그림 7

- 참여자들의 생애 주기별 페미시국광장 참여경로 (전체)



⑩

법 조문상 강간죄 성립은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데, 대법원은 ‘피해자의 반향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최협의설’이라고 한다.

참여자 F



- 나는 진짜 그냥 한자리라도 채워야지 되는 **의리감**으로 갔는데 ... (중략) ...
 웬지 나도 안가면 그러니까 500명이 안모일 건 알았는데 근데 그때 갔을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200명도... (못 모이고) ... (중략) ... **이 많은 회차 중에**
내가 한 번은 가야된다, 그 의무감은 있는 거예요. '언니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한 번은 가야지.' 약간 **이런 동지애라고 해야 되나?** ... (중략) ... **아무**
리 생각해도 이 여러 번은 못 가겠고 '한 번은 가야된다.' 의 의무감이 있는
 거고.

참여자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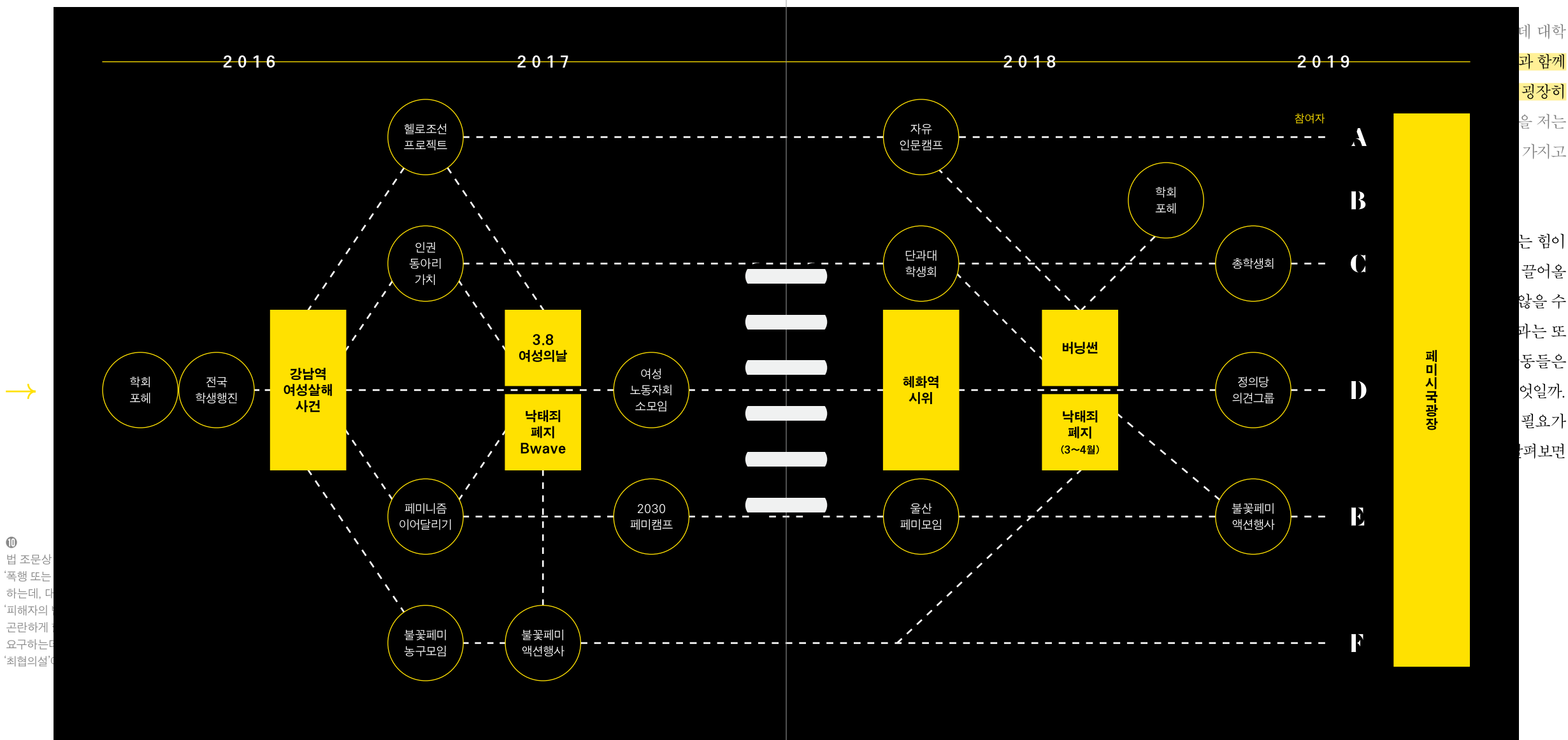


- 일단 저는 약간 그 주최 단체도 우리라는 범주 안에 있는 이유가 **어쨌든**
저도 지금의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뭔가 기획해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좀 더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
 니까... 음... 좀 더 공감대가 있고 **우리라는 범주 안에 페미니스트도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동지는 아니지만 멀리 있어도 같은 동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 같아요.

⑩
 정치적 기회 구조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사회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제한
 할 수 있는 특정 자원의
 배치, 제도적 배열,
 사회동원의 역사적 선례
 등"으로서 특정 사회운동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제한하는 정치의 구조이다.
 Herbert Kitschelt, 1986.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57-85.

졌다.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단순히 주최자와 참여자의 구분을 넘어
 페미니즘 운동 네트워크에 소속된 개인들이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기회 구조^⑩와 이에 대한 인식은 '왜 페미니즘 네트워크망이 소모임
 으로 이뤄졌는가'라는 물음의 답변으로 이어진다. 페미니즘 운동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문제제기들은 실상 제도권 정치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작동한
 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외면할 수만은 없다. 나의 일상이
 사회의 정치적 사안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창구로 이를 일상 속에서라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고 참여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광장에서 그
 러나 각자의 일상 공간에서, 학교 내 소모임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비록
 답답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일지라도 동시에 사회 이슈를 일상 속에서 해결해나
 가는 활력이 되고 다시 일상에서 집회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었다. 이것이 소모
 임 활동의 계기이자 지속성을 담보한다.



⑩
 법 조문상
 '폭행 또는
 하는데, 다
 '피해자의'
 곤란하게
 요구하는
 '최협의실'

졌다.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단순히 주최자와 참여자의 구분을 넘어 페미니즘 운동 네트워크에 소속된 개인들이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기회 구조^⑩와 이에 대한 인식은 ‘왜 페미니즘 네트워크망이 소모임으로 이뤄졌는가’라는 물음의 답변으로 이어진다. 페미니즘 운동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문제제기들은 실상 제도권 정치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외면할 수만은 없다. 나의 일상이 사회의 정치적 사안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창구로 이를 일상 속에서라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고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광장에서 그러나 각자의 일상 공간에서, 학교 내 소모임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비록 답답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일지라도 동시에 사회 이슈를 일상 속에서 해결해나가는 활력이 되고 다시 일상에서 집회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었다. 이것이 소모임 활동의 계기이자 지속성을 담보한다.

- 주변 친구들의 관심이 없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이 없고, 근데 대학교에 와서 …(중략)… 같이 갔을 때 그동안 혼자 가던 것에서 학회원들과 함께 가서 굉장히 그 느낌을 공유하고 그 느낌을 배우고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배우고 싶다 추구하고 싶다 하던 것을 저는 학회를 통해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혜’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학회장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문제를 함께 외치자는 목소리가 스러지고 더 역동이 생기지 않을 때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모임을 통해 문제를 공부하고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역동들은 소모임을 굴러가게 하지만 긴 추진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모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길 요구하는 단체의 성격과는 또 달랐고 이것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활동들은 이 소모임이 지속할 수 있는 꾸준한 힘이 되었는데 과연 이 “애정”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 알기 위해 참여자들이 어떻게 소모임을 시작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어떻게 이 페미니즘 활동에 진입할 수 있었냐는 경로를 살펴보면 이후 운동 네트워크 형성에 유의미한 의미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

⑩ 정치적 기회 구조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사회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특정 자원의 배치, 제도적 배열, 사회동원의 역사적 선례 등”으로서 특정 사회운동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제한하는 정치의 구조이다. Herbert Kitschelt. 1986.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57-85.

참여자 B



참여자 F



- 나는 진짜 그냥 한자리라도 채워야지 되는 의리감으로 갔는데 …(중략)… 웬지 나도 안가면 그러니까 500명이 안모일 건 알았는데 근데 그때 갔을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200명도… (못 모이고) …(중략)… 이 많은 회차 중에 내가 한 번은 가야된다, 그 의무감은 있는 거예요. ‘언니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한 번은 가야지.’ 약간 이런 동지애라고 해야 되나? …(중략)…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러 번은 못 가겠고 ‘한 번은 가야된다.’ 의 의무감이 있는 거고.

- 일단 저는 약간 그 주최 단체도 우리라는 범주 안에 있는 이유가 어쨌든 저도 지금의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뭔가 기획해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좀 더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음… 좀 더 공감대가 있고 우리라는 범주 안에 페미니스트도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동지는 아니지만 멀리 있어도 같은 동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E



그림 7
- 참여자들의 생애 주기별 페미시국광장 참여경로 (전체)



⑩ 법 조문상 ‘폭행 또는 …하는데, 다 ‘피해자의 … 곤란하게 … 요구하는데 ‘최협의실’

1) 소모임의 특징과 기능

참여자 C



- (학교에 입학하고) 내가 여성으로서 겪었던 삶이랑 이 친구, 내 친구들이 여성으로서 겪어왔던 삶이나 어떤 경험들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강남역 살인사건이 제가 입학하고 5월 달에 있었는데...(중략)...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약간 그렇게 자연스럽게 페미니즘 공부를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활동도 그렇고.

참여자 D



- 제가 1학년 때 동기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몇 년 후에 뭔가 정정하고 뭔가 인권센터도 찾아가고 ○○쌤(학과교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 페미니즘이 뭔가 나의 삶의 문제구나. ...(중략)... (개인적인 사건을) 겪게 되고 좀 그래서 조직도 나오게 되고 반도 만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참여자 C와 D는 자신의 경험을 여성의 전체 문제로 치환하는데 작용했던 경험을 소모임 활동이나 개인적 관계에서 가능했다고 말한다. 즉 공식 단체나 기관을 통한 경험이 아닌 일상의 경험과 삶을 바탕으로 둔 소모임이 여성의 문제를 사회 의제로 발화하고 이에 참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참여자 F



- 불꽃페미는 진짜 새로웠어요. 전혀 이런 구조가 없고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것도 되게 새롭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약간 활동적인 사람인데 그런 것도 좀 맞았어요. 제가 처음 불꽃페미 한 게 농구하려고 간 거였거든요. 여성운동 하려고 간 게 아니라 농구하러 간 거였어요. ...(중략)... 이 여성운동 보다는 정말 농구를 하려고 처음에 갔다가 근데 그런 몸으로 하는 거에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근데 거기에서 같이 여성운동도 할 수 있는 동지들도 생기고.

참여자 F에게는 여성단체 내 농구 소모임이 중요했다. 구성원이 소모임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경험·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잘 맞는다고 여기게 되면 내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획득한다. 이 경험은 참여자 F에게 “새로웠”었던 경험이었다. 활동적인 성격인 데다가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는 참여자 F에게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소모임의 존재가 색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동지들”을 만나면서 여성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획득하게 된다.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이 소모임 활동들은 여성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치환하는데 발돋움줄 뿐 아니다. 소모임 활동은 이들이 일상과 사회적 이슈를

2) 소모임 네트워크망

참여자 C



끊임없이 연결하고 관련된 활동을 지속하는데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이 역동을 재생산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여성운동보다 농구를 하려고” 들어간 소모임이 결국에는 여성 운동을 하게 되는 ‘자발적 동기’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렇기에 페미시국광장의 참여 경로를 말하려면 소모임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참여자 B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모임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특성도 다양하다. 다양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소모임이 어떻게 집회 참여 경로적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학내 인권 동아리 ‘가치’에서) 솔직히 대단한 세미나를 하거나 엄청 대단한 학술적 지식을 얻은 것은 솔직히 없는데. 그냥 그 안에서 같은 비슷한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하면서 나눈 대화들이나 하면서 나눈 토론들이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참여자 E



- (소모임 ‘포혜’에선)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논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지역에서 왔는데...(중략)... 서로 정말 가족이다 여기가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의지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 책모임인데 영화도 보고 뭐... 올프는 친밀도가 높은 그룹이었어요. 책 안 읽고 오는 멤버가 많았고.(웃음)...(중략)... 울산은 (울산 페미니스트 모임 ‘올프’) 항상 좋은 기억만 있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면서 막 그런 거기 참여연대? 그게 있는데 거기서 하는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참여하고 나한테 고향이라고 하면 울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이들이 소모임에서 특별한 학술적 지식을 갖추게 하거나 큰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토론하고 “사담을 많이 나누”면서 서로에게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경험 속에 소모임은 “가족”과 “집” 나아가 “고향”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사회적 문제와 개인의 삶의 문제를 엮어가는 활동을 단단히 일상 속에 뿌리내리게 한다. 또 “참여연대 세미나”와 같은 다른 사회적 활동과도 연계하는 다리가 된다.

- 16년도에 그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강연사업에 참여) 해가지고 강연하면서 그 대구 부산 울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구. ...(중략)... (2030) 페미 캠프 가면서 이제 약간 폭발했죠. 어딜 가나 이제 다 인사해. ...(중략)... 다른 지역에서도

낙태죄 폐지, 버닝썬 시위, 3월 8일 여성의 날 집회 그리고 페미시국광장까지 이들을 도달하는 중심에는 지역을 넘어 같이 버스를 대절하고 올라오게 하는 페미니스트 정체성으로 엮어진 촘촘한 그물망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비가시적이고 사소하지만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것이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망의 핵심이다.

이게 계속 이어졌고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소모임의 연속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망으로 확장되었다. 참여자 E는 대구-부산-울산의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서울 지역을 포함한 전국 차원의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망으로 연계했다.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망은 이런 식으로 구축되어 자생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소모임적 조직은 개인과 개인을 통한 조직과 조직의 연결망을 통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지역을 넘나들며 유지되고 있었다.

참여자 F



- 여기는 그런 (상근적) 규칙성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잠깐 왔다 가기도 하고. ... (중략) ... 또 이 운동의 역동이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확 힘을 내기도 하고 약간 주춤하기도 하고, 주춤? 약간 휴식기도 있기도 하고.

참여자 F의 이 인터뷰 대목은 이러한 영영페미니스트 조직이 규칙의 또 다른 역동성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그는 상근 조직의 규칙성과 물이 없는 것이 도리어 이들의 활동 동력이 되어서 특정 행사, 집회를 만들고 참여하는 강력한 에너지로 작동해왔다고 서술했다. 이들은 “확 힘을 내기도 하고 약간 주춤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권유하지 않아도 광장까지 도달해 만나게 된다.



- 내가 나 혼자 만약에 여기에 (집회에) 있다가 그냥 집에 갔으면 이 감동 못 느낄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 집회에서 막 이야기를 “어 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후가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 (중략) ... 그리고 나서 더 따듯해지고 진짜 자매애가 이런 테서 생기는구나. ... (중략) ... 그런 경험들이 제가 불꽃페미에서 계속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F는 혼자서 참가했다면 느끼지 못했을 감정을 다 같이 참여해서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매애”를 획득했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의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정체성’은 이 경험으로 또 성장한다. 그리고 다시 페미니스트 연결망 내의 사람들을 스스로 구축할 것이다. 이때 연결망을 스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가시적인 동원 방법이 아니더라도 각 의제에 동의하며 그때 차오르는 감정에 의해 서로 참여할 것이라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자들은 비가시적이지만 분명히 체험한 이 연결을 다시금 다른 집회에 참여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하지 않았어도 또 다시 다른 집회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말이다.

소모임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망은 집회 참여자들이 광장에 도달하게 하는 버스 정류장과 버스처럼 경로이자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었다. 강남역 추모제,

다시 참여자들의 특성으로 페미니즘광장을 들여다 보자. 참여자들은 그들의 소모임 활동을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시켜온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으로 자발적 동기를 구축하여 페미니즘광장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굳이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광장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을 이전의 페미니즘 집회에서처럼 이 페미니즘광장에서도 다시 확인했다. 이것은 일종의 '동지애' 혹은 '자매애'로써 참여자들만의 체험이 아니라 주최 측과 참여자 사이에서도 형성되었다. 가까이에 있지는 않지만 다소 먼 곳에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마주칠 동지로 연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연결망이 계속해서 중심 의제로 떠오르지 못했던 성차별 문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타개하겠다고 했을 때 이들을 다시 결집하게끔 만든 동기이자 힘이었다.

페미니즘광장은 바뀌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성착취 카르텔과 성차별적 구조가 개별 사안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탄생했다. 이 의제들을 같이 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되자 페미니즘광장의 연대체가 형성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최 측이 채택한 전략은 여러 단위가 연합해 여러 의제를 주제로 시위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젠더문제가 굉장히 부차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는 현실에서 마주쳐야 했던 무력감과 분노의 감정들을 여러 여성단체로 하여금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결집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 결집은 왜 여성운동이 부문운동이어야 하는지, 어쩌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졌다. 페미니즘광장은 해결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성차별, 성착취 카르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최종의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각 의제를 무리하게 하나로 옥여넣지 않는 선상에서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며 각 주차별로 서로 서로의 무대가 되어주었다. 각 문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그 핵심에는 강간죄가 있다는 메시지는 광장이 정치적 창구가 되지 않는 순간에서 꺼낸 새로운 방식이자 도전이었다.

이 논문에서 밝은 페미니즘광장 참여경로의 핵심 요소, 소모임 활동, 자생적으로 구축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페미니즘광장의 릴레이적 연대체 구성은 페미니즘광장을 포함한 지금의 페미니즘 운동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여성 운동의 열악한 정치 상황이라는 국면에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루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또다시 새로운 광장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전 국민의 사회 운동 참여가 촉구되는 와중에 등장한 '사회 운동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창구를 얻지 못하는 여러 부문 운동들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힘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이 페미니즘광장으로 본 페미니즘 운동의 코어에서 아이디어를 얻길 바란다.

참고
문헌

우은희(2013), 단일이슈 사회운동
세력의 정치 제도화 연구: 1970~80년대
독일 환경·여성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양현아(2018),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1(1), 213-260.

조주현(2019), 논쟁 중인 한국의 여성운동:
전략적 행동장이론과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3호,
110-154.

양현아(2018),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1(1), 213-260.

조주현(2019), 논쟁 중인 한국의 여성운동:
전략적 행동장이론과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3호,
110-154.

Robin West(1989), The Difference
in Women's Hedonic Lives: A
Phenomenological Critique of Liberal
and Feminist Legal Theory, Wisconsin
Women's Law Journal, vol.3.

Mata, Vincente Celestino(2019),
Bridging Movements through
Intersectionality: Creating Coalitions
between Members of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Rights Organizations,
eScholarship, University of
California.



〈2019 온갖문제연구 -
궁금한 김에 연구〉연구보고서는
희망제작소와 사전협의 없이
무단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2019 온갖문제연구 -
궁금한 김에 연구〉연구보고서는
시민연구 지원사업으로
희망제작소 입장과 무관합니다.

◆ 분노 팀 장소정 · 왜 사람들은 광장으로 모여들까?



서로 다른 지형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지향
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시작한 연구였어요.** 단일한
범주로 묶고 분류하는 것 대신 광장 속에 있었던 개
개인의 무한한 우주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 분노 팀 박재승 · 페미니즘이 공론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그로 인해 광장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면 무엇이 그 구성을 변화하는 힘인
지도요. **그건 페미니즘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시민들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밝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